

# 장서평가에 관한 소고

—특히 이용조사를 중심으로—

유 재 옥\*

## <목 차>

- |               |                |
|---------------|----------------|
| I. 서론         | 2) 최종대출일 분석방법  |
| II. 이용조사의 성격  | 3) 상대이용 조사방법   |
| III. 이용조사의 목적 | 4) 문헌전달능력평가 방법 |
| IV. 이용조사 방법론  | V. 이용조사의 제한점   |
| 1) 대출분석방법     |                |

## I. 서론

각종 도서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 즉 이용자에 대한 최선의 봉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고유한 목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서나 비도서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는 온갖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도서관경영의 최대 관심사라 하겠다. 따라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장서평가가 그 주요 맥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도서자료라는 특이한 성격 즉 정적인 특성을 지닌 도서는 과연 도서관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며 유용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만약 장서이용이 안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를 설명하고자

\* Indiana University 정보학 박사과정 수료.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진일장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장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기용되고 있는데 크게는 장서의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로 대분할 수 있다.

**장서의 양적인 평가:** 도서관의 기존 장서수를 도서관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장서량을 규정한 기본 장서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규정한 각종 도서관의 자료기준<sup>1)</sup>이라든지, 혹은 Clapp & Jordan<sup>2)</sup>이 제시한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장서수를 계산하는 공식등을 이용하여 어느 특정 도서관의 장서량이 과연 그 수준을 상회하는지 혹은 하회하는지를 평가하는 양적인 평가방법이다.

장서의 양적 평가방법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은 Downs와 Heussman<sup>3)</sup>이 지적한 대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기본 장서수가 대학당국이나 행정가들에게는 최대장서수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반대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도서관 장서수와 도서관의 유용성 내지 질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즉, Jordan<sup>4)</sup>은 장서의 양적인 크기와 대학의 학문적인 명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장서의 크기가 장서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것은 사실이다. 장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즉 장서가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정수준으로 만족시키고 있으며 장서수는 계속 증가하고 꾸준한 폐기정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그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적절한 장서개발정책을 펴지않고 단순한

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1981.

2) Clapp, V.W. & Jordan, R.T.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6 : 371-380. 1965.

3) Downs, R.B. & Heussman, J.W.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1 : 28-35. 1970.

4) Jordan, R.T. "Library characteristics of colleges ranking high in academic Excellen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4 : 369-376. 1963.

기존 장서수만을 가지고 장서를 평가한다는 것은 때로 부정확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양적인 장서평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장서의 질적 평가를 들 수 있다.

**장서의 질적 평가:** 수량적으로 만족할만한 장서라 하더라도 과연 그 장서의 유용성 및 질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장서의 질적인 평가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질적인 장서평가에는 두가지 방법이 기용될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으로는 주제전문가나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가 학자 내지는 전문사서에 의해서 그 특정분야의 장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카고대학의 경우 이러한 장서평가를 위해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질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관한 장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어떤 교수들 중에는 설혹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관심밖의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관한 교수의 평가가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두번째 방법으로, 서로 장서의 규모나 주제분야가 비슷한 다른 도서관을 선정하여 그 도서관의 장서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혹은 어느 특정 주제별 서지나 기존의 도서목록등을 선정하여 도서관 장서를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특히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의 경우 전문분야 장서를 보다 깊이있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서지와 자신의 도서관의 장서상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그 도서관의 장서의 약점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개는 주제별 서지나 기존의 도서목록 등을 쓸 때 대개 이러한 목록들은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자료는 포함하고 있으며 도서관 또한 그러한 자료들은 이미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II. 이용조사(Use Studies)의 성격

장서의 양적, 질적 평가방법은 모두 장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

는 점보다는 장서 그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 특색이다. 한편 이용조사는 장서 그 자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장서의 이용의 정도나 이용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장서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1975년 미국의 핏츠버그대학팀이 실시한 이용조사는 학계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1969년에 수서된 장서 중에서 단지 51.6%만이 수서후 7년간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sup>5)</sup> 거의 반정도의 장서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후 계속하여 실시된 이용조사들은 대다수의 큰 대학 도서관의 거대한 장서중에는 수년씩 결코 이용되지 않고 서가만 자리하고 있는 장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rueswell<sup>6)</sup>은 이용조사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80/20이라는 법칙으로 설명하였다. 즉 80%의 대출요구를 20%의 장서로 충당할 수 있다는 법칙이었다. 혹은 90%의 대출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50%의 장서로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조사를 통해 보여 주었다.

이와같이 장서평가의 한 방법론으로 이용조사가 크게 호평을 받고있다. 어느 특정 도서관의 장서는 얼마나 이용되는지 만약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장서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용조사는 기존 장서의 적정수준을 수량적인 면에서 라기 보다는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서를 평가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정보는 도서관 경영자들에게 주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관심있는 학자나 연구자들에게는 방법론적인 접근방법개발을 위해서도 또한 유용한 연구분야라 하겠다.

이용조사의 또 다른 특성은 이용조사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함께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즉 연구결과를 도서관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용조사는 주로 어떤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주요결과와 제한점,

5) Kent, A. et. al. Use of library material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 N.Y., Marcel Dekker, 1979.

6) Trueswell, R.W. Some behavioral patterns of library users: the 80/20rule," *Wilson Library Bulletin* 43: 458-461. Jan. 1969.

어떠한 연구방법론이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이용조사의 목적

이용조사(Use Studies)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추구하면서 수행되고 있다.

- 1) 이용조사를 함으로써 장서중에서 전혀 이용되지 않는 장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폐기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이용조사를 통하여 핵심자료를 파악하여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비하고자 한다.
- 3) 전체장서의 이용형태별 보다는 특정주제분야별로 이용형태를 조사하여 주제분야별의 체계적인 장서개발계획이나 수서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 4) 도서관의 장서가 이용자들의 문헌요구를 어느정도 만족시키는지를 측정하여 문헌전달능력을 파악하고 도서관행정 및 관리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 Ⅳ. 이용조사 방법론

이와같은 다양한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조사는 그 각기의 목적에 따라 고유한 조사방법론이 고용되고 있다. 즉 폐기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의 이용조사는 1) 대출분석방법(Circulation Analysis Method)을 사용하며, 핵심자료 파악을 위한 이용조사는 2) 최종대출일 분석방법(Last Circulation Method)을 쓴다. 장서의 주제별 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 상대이용 평가방법(Relative Use Method)을 기용하고 도서관의 문헌전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용조사는 문헌전달 평가방법(Document Delivery Test)을 사용하고 있다. 각 조사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대출분석방법(Circulation Analysis Method)

장서중에서 어떤 부분의 장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어느 장서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대출분석 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이용이 되지 않는 장서의 특성을 파악하여 폐기정책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서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또한 주로 이용되는 장서의 어떤 특성이 앞으로 미래의 장서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미래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출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표본추출(sampling)방법을 쓸 수 있다. 장서표본(collection sample)과 대출표본(check-out sample)이다. 장서표본은 표본을 전체 장서에서 뽑는 것이고 대출표본은 조사당시에 대출되고 있는 자료로 표본으로 삼는 방법이다. 장서표본은 모집단이 전체 장서이다. 따라서 전체 장서에서 표본을 뽑는데 주로 도서관의 사무용 목록(shelf-list)에서 무작위 혹은 체계적인 표본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뽑아 각 도서의 과거 이용 경력을 조사한다. 이 방법은 각 도서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용경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거의 대출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장서표본을 쓰는 것이 무의미하다. 즉 장서표본은 도서의 과거 대출역사를 훑어 봄으로써 어느 특정 기간동안의 도서이용 여부, 횟수, 도서대출및 반납 날짜등의 정보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

한편 대출표본은 조사기간 동안에 어느 특정 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는 모든 도서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표본추출 방법이 다르므로 그에 수반되는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Jain<sup>7)</sup>이 지적한 대로 첫째 장서표본은 그것이 전체 장서로 부터의 무작위 추출이며 또한 표본의 크기가 적당하다면 그 결과는 대

7) Jain, A.K., *Report on a statistical study of book use*. Lafayette, Ind.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Purdue U., 1967.

출표본에서 얻은 결과에 비하면 충분히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본이 편견없이 전 장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출표본은 그 대표하는 모집단이 단지 그 조사기간에 대출되어 나가는 장서이기 때문에 전체 장서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장서표본은 도서의 어떤 기간동안의 이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잇점이 있기는 하나 조사방법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많고 조사수행이 어렵다. 한편 대출표본을 쓸 경우 큰 장점으로는 표본추출방법이나 자료수집이 장서표본보다는 용이하다는 점이다. 장서표본을 쓸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방불명된 책이나, 분실된 기록, 책에 따라 대출규정이 다르거나 이용자에 따라 대출규정이 다른 경우에 '이용'을 해석하는 어려움등의 문제점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분석방법이 장서표본을 쓰든지 아니면 대출표본을 쓰든지 그 어느 것에서 수집된 자료라도 대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지게 마련이다. 즉 도서의 나이, 언어, 도서형태(도서 혹은 잡지), 이용횟수 등이다.

장서표본을 이용한 이용조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Fussler & Simon<sup>8)</sup>의 시카고대학의 장서이용조사일 것이다. 그들은 사무용 목록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9058 종으로 어떤 표본도서의 복본이 있다면 그 복본들의 이용이 포함되었다. 표본에서 제외된 자료는 지도류, 신문류, 회귀본, 참고문헌, 특별장서 및 제본되지 않은 잡지류였다. 그들은 표본 중에서 도서관 상호대차에 이용된 도서라든가 예약된 책들(reserve books), 행방불명된 책들을 이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런 종류의 책들은 아마도 가장 이용이 빈번한 자료들 임에 틀림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관내에서 이용된 책들은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관외대출 자료는 아마도 관내이용을 포함한 전체도서 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인데 실상 이 가설은 나중에 McGrath에 의하여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8) Fussler, H.H. & Simon, J.L.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69.

9) McGrath, W.E. "Correlating the subjects of books taken out of and books used within an open-stack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2 : 280-285, 1971.

Fussler & Simon 은 장서표본의 1954 년에서 1958 년까지 5 년간의 과거대출 경력을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도서의 언어형태, 출판일, 입수일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과거의 대출경력이 미래의 도서이용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가 됨을 보여주었다. 만약에 과거대출경력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도서의 나이(출판일)와 언어에 의해서 미래이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이용 예측변수들은 인문과학분야의 도서보다는 과학분야의 도서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분야의 장서는 언어와 도서의 나이만으로 적어도 장서 25%를 미래에 이용될 확률이 희박한 장서로서, 즉 평균 35 년에 한번 꼴로 이용될 장서로서 은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의 나

〈표 1〉 장서의 은퇴순위

LANGUAGE	PUBLICATION DATE
German	Pre-1904
French	Pre-1879
Other	Pre-1879
French	1879-1903
Other	1879-1903
English	Pre-1879
German	1904-1913
French	1904-1913
French	1914-1923
German	1914-1923
Other	1904-1923
French	1924-1933
German	1924-1933
English	1879-1913
French	1934-1943
German	1934-1943
Other	1924-1943
English	1914-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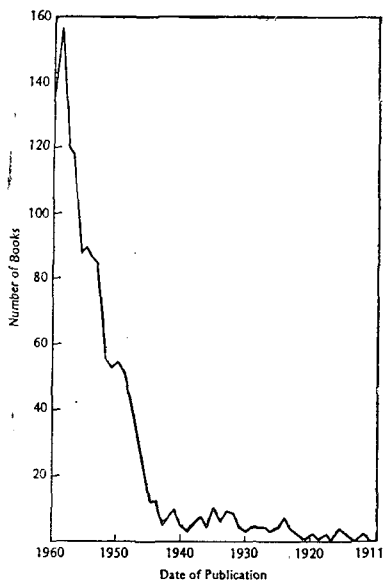


이 만으로도 미래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장서 25%는 나이에 기준하여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1>은 저자들의 개발한 경제학분야의 은퇴장서 우선순위이다. 즉 1904년 이전에 출판된 독일어로 쓰여진 경제학분야도서가 최우선으로 은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언어와 도서의 나이에 기준한 이러한 법칙은 후에 California, Berkeley 大學과 Northwestern 大學에서의 이용조사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Chicago 大學의 이용조사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대출표본을 이용한 이용조사로는 Kilgour 와 Trueswell 을 들 수 있다. Kilgour<sup>10)</sup>는 Yale 의대 도서관의 대출표본을 이용하여 1960年 10月 10日 부터 1961年 6月 30日까지 7개월 20일간의 대출도서중에서 반납되고 있는 매 5번째의 도서를 표본으로 잡아 총3,230권의 도서를 이용자 유형별 도서형태별, 나이별로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도서 이용율은 도서의 나이와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79%의 대출자료는 과거 12년사이에 발간된 자료임이 나타났다. Fussler & Simon 의 연구결과 처럼 이용은 도서의 나이와 함께 쇠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대출분석방법이 장서표본을 쓰던지 아니면 대출표본을 쓰던지 대출자료분석은 장서중에서 이용이 되는 장서와 이용이 되지않는 장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서 도서의 어떤 특성이 도서이용에 영향을 주는지 미래의 도서이용 예측

<표 2> 도서의 나이별 장서분포도



10) Kilgour, F.G. "Recorded use of books in the Yale medical library," *American Documentation* 12: 266-269. 1961.

변수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도서관 경영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폐기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할뿐 아니라 서가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류의 장서를 개가식으로 배열할 것인지, 이용에 빈번한 장서들은 도서관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소장한다든지, 이용이 거의 없는 장서는 도서관 건물의 구석진 곳으로 옮겨놓음으로서 효율적인 서가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본을 구비해야 할 장서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

## 2. 최종대출일 분석방법(Last Circulation Method)

이상에서 살펴 본 대출분석방법은 도서의 과거 이용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의 미래 이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도서는 폐기나 창고같은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론의 약점은 만약 대출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대출 기록이 가능한 경우, 행방불명된 도서나 도서카드의 분실등으로 인해 대출 역사를 알기 불가능할 경우 보완할 대책이 없는 것이다. Trueswell은 이러한 조사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최종대출일 분석방법(Last circulation method)을 제시하는데 이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해 장서중에서 핵심자료(core collection)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Trueswell<sup>11)</sup>은 장서를 두가지로 분류한다: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도서 즉 핵심장서(core collection)와 결코 이용되지 않는 장서이다. 이 중에서 핵심장서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을 통해 장서중에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수의 핵심장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핵심장서는 곧 미래에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장서일 것으로 가정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비하고자 한다.

11) Trueswell, R. W. "Determining the optimal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16: 49-60.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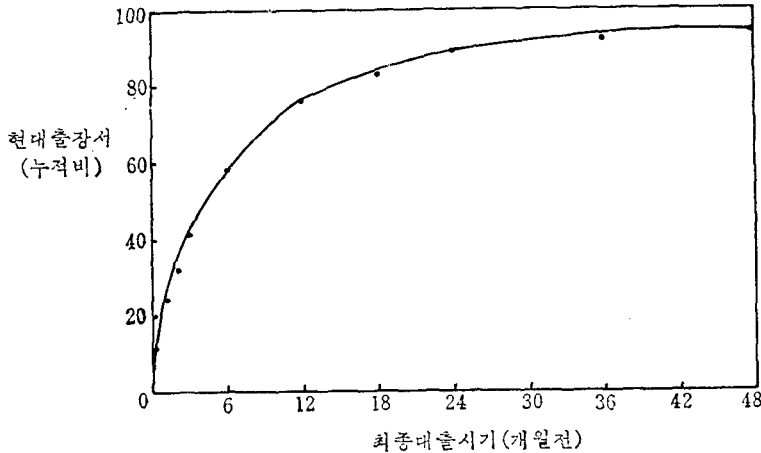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느 특정조사 기간 동안에 대출된 모든 장서 즉 대출표본을 점검하여 그 도서의 현재 대출일 바로 직전의 대출되었던 시기를 조사한다. 대출역사 전체를 훑어 보아야 하는 대출 분석방법에 비하면 비교적 간편하고 손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즉 현 조사시점에서 대출되고 있는 도서의 바로 직전의 도서대출 시기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도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이용되었던 도서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표 3>과 그래프 <표 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출되고 있는 장서의 58%는 과거 6개월사이에 한번이상 대출된 적이 있는 장서임을 <표 4>의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

<표 3>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한 도서이용 빈도표

최종대출시기(개월전)	%	누적비(%)
0	11	11
1	13	24
2	8	32
3	9	41
4	8	49
5	2	51
6	7	58
7	3	61
8	1	62
9	3	65
10	3	68
11	3	71
12	5	76
18	7	83
24	6	89
36	2.8	91.8
48	2.4	94.2
60	5.8	100.0

〈표 4〉 최종 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한 도서이용 분포 그래프



는 약 90%의 장서는 과거 2년사이에 한번 이상 이용된 적이 있는 도서인 것이다. 즉 핵심자료를 94%로 규정한다면 도서중에서 과거 3년사이에 대출된 적이 있는 도서는 핵심장서에 포함된다는 결과이다.

결국 Trueswell의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한 핵심장서 파악도 앞에서 고찰한 대출분석방법과 같은 결론을 천명하고 있는 데 즉 미래의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과거의 이용' 여부가 그 주요변수가 됨을 재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용된 적이 있는 도서는 가까운 장래에도 이용될 확률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한 이용조사는 어느 특정 도서관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장서의 크기와 구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실제적인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이 방법에 의한 핵심장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제에 응용할 수 있다; 조사기간중 첫 달에 대출되고 있는 모든 도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책등에 동그란 스틱커를 부착할 수 있다.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대출되고 있는 도서에 스틱커를 붙혀 표시한다. 이 때는 아마도 90%의 모든 대출자료에 표시를 하는 셈이 되는데 왜냐하면 10%의 대출자료는 이미 지난 달에 표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번째 달에는 아마도 대출자료의 50%만 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대출 장서의 99%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 나간다.

핵심장서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는 격리된 장소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서가관리와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장서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Trueswell<sup>12)</sup>은 장서크기가 비슷한 세 대학 도서관을 최종대출일 분석 방법에 의해 조사 연구한 결과 Northwestern 대학의 경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장서의 93%는 과거 5년 사이에 한번 이상 이용된 적이 있는 장서로 밝혀졌으며 이 93%의 이용을 약 60%의 핵심장서가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nt Holyoke 대학의 경우 현재의 85%의 대출을 약 40%의 핵심장서가 충족하고 있으며 Massachusetts 대학은 50%의 장서가 90%의 대출요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ueswell의 이 조사방법은 과거 대출역사가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할 경우 대출분석방법대신에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실제적으로 핵심장서를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에 의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도 그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살펴 본 두 조사방법론에 의한 이용조사는 그 조사목적이 장서중에서 이용되는 장서와 이용되지 않는 장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서관을 경영하는 행정가와 경영자들에게 장서의 약점이라든지 장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후원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 3. 상대이용 조사방법(Relative Use Method)

대출분석방법이나 최종대출일 분석방법을 쓰는 이용조사는 장서를 하나

12) \_\_\_\_\_, "User circulation satisfaction vs size of holdings at three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0: 204-213. 1969.

의 전체로 취급함으로써 그 이용형태를 파악한다. 이와는 다르게 장서의 이용형태를 주제별로 파악함으로써 그 결과를 장서개발 정책이나 수서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Jain<sup>13)</sup>은 상대이용 조사방법론(Relative Use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이용 조사방법을 기용하기 위해서는 장서표본, 대출표본 및 판내 이용도 포함한다. 상대이용이란 예상되는 이용(expected use)과 실제 이용(actual use)의 비율을 지수로 나타냄으로서 이 '이용지수'를 각주제별 장서의 이용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학 분야 장서가 전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5%이고 수학이 약 12%, 지리학이 약4%라면 사회학 분야 장서의 예상 이용율은 5%, 수학은 12%, 지리학은 4%이다. 실제 이용율은 실제로 사회학 장서가 이용되고 있는 정도와 전체 장서 이용에 대한 비율이다. 이 예상이용율과 실제 이용율의 비율이 곧 이용지수가 되는 것이며 이는 어떤 주제 분야의 장서

〈표 5〉 상대이용 조사방법에 의한 주제별 이용지수

주제	예상이용율	실제이용율	과잉/과소이용
Q(General)	2.63	1.68	-
QA	15.13	28.07	+
QB	9.03	9.45	=
QC	20.54	21.15	=
QD	3.50	1.23	-
QE	2.18	2.40	=
QH	1.12	0.81	-
QK	0.24	0.16	-
QL	0.11	0.04	-
QM	0.01	0.01	=
QP	0.32	0.20	-
QR	0.09	0.05	-

\* (+) 과잉이용      (-) 과소이용      (=) 적정이용

13) Jain, A. K. *op. cit.*

가 예상 이용율보다 과잉으로 아니면 과소로 이용되는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된다. <표 5>는 상대이용 조사방법을 쓴 이용조사의 결과를 표로 보여 주고 있다.

상대이용 조사방법은 장서개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제별 장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바 이는 주제별 장서개발의 적정여부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제별 장서현황의 약점을 노출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조사 방법론의 장점이다. 즉 주제별 장서의 이용지수가 '과잉'일 때는 그 주제분야의 장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 복본의 확충이라던지 수서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과잉 이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서구입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이용 조사방법론에 의한 연구결과는 도서관 전산화작업에서 장서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킬 때 그 우선 순위를 정해줌으로써 가장 이용이 빈번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활발한 주제 분야의 장서부터 전산화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전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행정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잉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제분야의 적극적인 수서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성을 보조받는 셈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잉, 과소이용의 배후에는 혹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에 나타난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든다면; 과소 이용되고 있는 주제분야의 장서는 현재의 장서구성이 그 범위와 질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수준을 훨씬 능가할 지도 모르며 반대로 장서구성이 현재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최신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과소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4. 문헌전달능력 평가(Document Delivery Test)

지금까지 고찰한 세 조사방법론들은 어떤 특정 도서관의 장서의 이용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이 그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약한 것이 이들 방법론의 약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도서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대학 도서관의 지리적인 위치, 도서관의 조직, 장서의 양, 교수들의 도서관에 대한 태도, 도서관 행정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도서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한 방법으로서 도서관의 장서가 그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문헌요구에 대한 충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장서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헌전달 능력평가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한 연구로 Firl & Robinson<sup>14)</sup>의 조사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문헌에 대한 요구를 그 도서관이 어느정도 만족시키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의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의 문헌요구를 그 도서관이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지 조사하고 만약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08건의 문헌요구 중에서 61%는 현 장서에 의해 충족이 되었으나 불충족된 39%의 문헌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그 원인이 이미 대출된 경우(35.5%),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24.6%), 이용자들의 실수—— 청구번호를 잘못 기재한다거나(8.8%), 서가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5.3%), 카드 목록에서 찾지 못하는 실수(4.4%)— 및 원인불명이 11.7% 등으로 나타났다.

파악된 39%의 문헌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변수들은 결국은 도서관의 장서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출기간 규정이 너무 길어서 혹은 복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찾는 책들은 번번히 다른 이용자들에게 의해 이용되고 있다든지, 장서점검이나 서가관리의 소홀로 서가의 책배열이 잘못되어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책을 발견할 수 없다든지, 혹은 이용자들에게 대한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교육 불충분으로 카드목록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데 어려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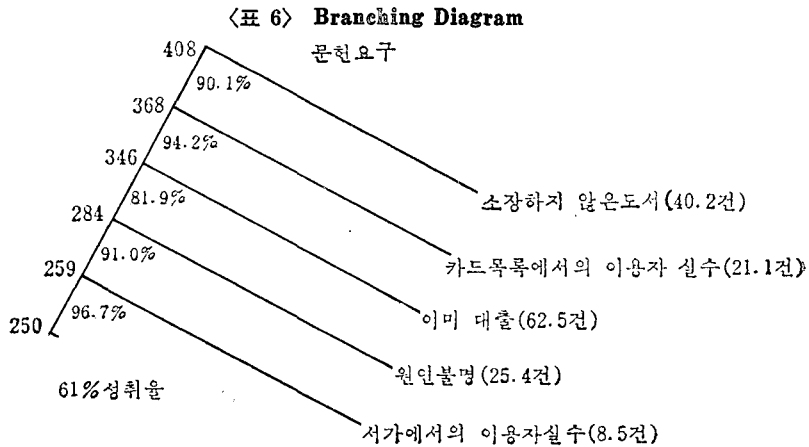
14) Firl, T.E. & Robinson, M.G. "Book availability at the U. of California, Santa Cruz,"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7 : 501-508. 1986.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또한 미약한 수서정책으로 인해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등등 그 도서관의 장서의 약점이나 도서관 관리행정의 취약점을 들어내어 장서개발정책 혹은 도서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점이 문헌전달 능력평가의 공헌이라 하겠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치유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데 수서정책의 보강이라던지, 목록의 재정비, 도서관 이용자에게 대한 지도교육 강화, 대출기간 조정, 이용율 높은 도서의 복본 구입강화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저자들이 문헌전달 능력평가에 기용한 Branching Diagram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총408건의 문헌요구가 250 건만이 만족스럽게 성취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 408건의 문헌요구중에서 368 종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이므로 90.1%의 성취율을 보이고 368 종 문헌요구중에서 이용자들이 카드목록에서 찾지 못한 도서 22 개를 제외하면 94.2%의 충족율을 나타내고 있다. 346 개 문헌중에서 62개는 이미 대출된 도서이므로 81.9%의 성취율을 보이고 284 문헌중 원인불명 25 문헌을 제외하면 91.1%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문헌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방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중국에 문헌요구 성취율은 61%를 보이게 된 것이다.

### V. 이용조사의 제한점

이용조사를 통한 장서평가는 실제적인 장서개발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폐기정책이나 핵심장서 파악, 수서정책이나 도서관 행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행정을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행정을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구나 도서관의 자동화추세로 도서관이 전산화 될 때 이러한 이용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용조사는 더욱 간편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장서가 평가됨으로써 보다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려는 장서개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Brodus<sup>15)</sup>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조사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점들을 간과해 버린다면 진정한 이용조사의 결과를 오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1) 이용조사의 조사방법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용'이라는 것은 주로 대출되었을 경우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 통념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대출된 책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그냥 반납되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것이다. 즉 어느 특정 도서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그 이용정도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도서의 중요성이나 가치, 유용성 등이 '이용' 횟수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5) Brodus, R.N. "Use studies of library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 317-324, (Fall 1980)

2) '대출'된 자료로 '이용'을 대변하는 데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출자료가 대출되기 까지 이용자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다가 실패한 후에 찾는 자료의 내용으로 어느 특정 도서가 이용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즉 이용조사는 무엇이 이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상 무엇이 이용되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중에서 선택을 하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현 기존 장서는 이용을 조정(manipulate)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이용조사가 주로 관내이용을 포함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관외이용만으로도 관내이용도 포함한 전체이용을 대변하는 믿을 만한 지수가 된다고 가정하여 관내이용을 이용조사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내이용을 직접 측정하는데 이는 실상 관외이용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측정방법이 어렵고 까다롭다. 대개의 관내이용조사는 책상 위에 놓여진 도서들을 '이용'으로 간주한다. 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의 협조를 얻어 일단 이용한 책들은 서가에 꽂지 말고 책상이나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실상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연구자들의 제안에 협조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는지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4) Lancaster<sup>16)</sup>의 지적처럼 이용조사는 이용자들의 정보욕구(needs)를 재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표현된 정보요구(demands)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정보 요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5) 이용조사는 조사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일회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이용조사가 바람직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16) Lancaster, F. W. "Evaluating collections by their use," *Collection Management* 4(1/2) : 15-43, 1982.

## Use Studies of Library Collections

Chae-Ock Yoo

### Abstracts

Use studies of library collections have been conducted as a method of evaluating collections in a library. The main purpose of use studies is to evaluate the quality of a library collection in terms of extent and mode of its use. In addition to use studi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could be utilized in order to evaluate a library collection. Howeve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llection evaluation methods are more concerned with the collection itself than with its use.

Us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large academic libraries for the following specific purposes :

- 1) They attempt to identify little used portion of collections that can be retired less accessible and less expensive storage area.
- 2) They try to identify core collections to satisfy some degree of circulation demands in the near future.
- 3) They try to identify use patterns of selected subject areas or type of books that can be used to adjusting collection development practices or fund allocations.

---

\* Full time instructor, Duck Sung Womans University.

- 
- 4) They try to assess the document delivery capability of a library to improve their availability.

A number of methodologies employed for these specific purposes fall into four major categories ; 1) circulation analysis method, 2) last circulation method, 3) relative use method, and 4) document delivery test. Each method is briefly reviewed with its limitations.